

한민족의 통일 (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한평생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고 그 길에서 민족사에 길이 빛날 커다란 업적을 쌓으신 거룩한 한평생이었다.

그이의 위대한 사색과 발걸음은 민족의 최대속원의 조국통일과 하나로 잇닿아있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의 앞길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과 난관이 가로 놓여있다.

조신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내

이 땅에는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아픔을 알고 호르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분계선을 넘어 북에서 남으로 호르는 립진강이다.

호리신 안색으로 남녘땅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 말씀하시셨다고, 분계선 가까운 여기에 나오면 그대도 멀리서나마 남녘인민들의 얼굴을 볼수 있을것같고

울이시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를 두고 제일 심려하고계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그 마을에는 강너머 남쪽에 친척, 친구들을 두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이께 있어서 남녘의 인민들은 언제나 마음속가까이에 두신 귀중한 존재.

에 대한 생각으로 늘 마음쓰시는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시기에 백리청춘과

를 두고 제일 심려하고계신다고 말씀하시었다.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고귀한 지침이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러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며 마을뒤쪽에 있는 산마루에 오르시었다.

언제나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며

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그리도 마음쓰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그이께 있어서 남녘의 인민들은 언제나 마음속가까이에 두신 귀중한 존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제 5 차 범민족대회의 성과적개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립장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관문점을 통하여 서울로 과전할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이밖에 대회기간에 진행된 조국통일대토론회,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학생연대, 결의모임형식의 《통일문화의 밤》 등 다채로운 통일축전행사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철석의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여제의 뜻을 모아 열린 단결의 대회, 통일의 대회로서 남녘여제의 드립없는 통일의지를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주제83(1994)년 8월 4일과 5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8월 13일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는 제5차 범민족대회 개막행사일정으로

한편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로 나가려던 북측대표단의 관문점 통과가 미국과 남조선 《문민정권》의 차단행위로 하여 실현되지 못한것과 관련하여 북측대표단은 관문점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정말 우리 예술이 최고다.》(술)을 주제로 한 공연의 흐름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하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을

동포들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지피며

— 총련 금강산가극단에서 —

허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변함없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동포들 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 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일련단심을 공연종목마다 담아 동포사회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더욱 흘러넘치게 하고 화목하고 단합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무용 《내 사랑하는 꽃》, 남성독창 《높은 명 넘어가자》, 군무 《우리의 금수강산》, 녀성4중창 《우리를 보시라》 등 위인칭송과 조국사랑, 민족사랑이 뜨겁게 맥박치는 다채로운 종목들은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셨으며 민족자주위업과 재일조선인민을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한없이 그리워하는 총련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을 감명깊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자아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의 첫아침에도 이역땅의 모든 풍광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호리차고 꿇듯이 싸워가는 재일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진정과 사랑이 어린 축전을 보내주시었다.

